

광양시, 내년 국·도비 사업 밑그림

국도비 건의 사업 발굴 보고회 세계 최장 출렁다리 305억 등 소관 부처·기재부 등 긴밀 소통 효율적 예산 확보 나서기로

광양시가 세계 최장 출렁다리 등 내년 국·도비로 건의할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광양시는 최근 정인화 시장이 주재하는 '2025년 국·도비 건의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국·도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 국정 기조에 부합한 신규 대형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국·도비 재원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 공유하고 국·도비 확보 의지를 점검하고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광양시가 2025년도 국·도비로 건의할 사업은 총 198건, 2653억원(총사업비 2조 212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신규사업 60건 287억원, 계속사업 138건 2366억원이다.

이는 2024년 국·도비 건의액 2083억원에 비해 27.4%가 증가한 규모다.

주요 국·도비 건의 사업은 ▲세계 최장 골든브릿지(출렁다리) (305억)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광양시가 지난 26일 정인화 시장 주재로 '2025년 국·도비 건의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건립 (200억) ▲광양스포츠크터 야구장 조성공사 (180억) ▲광양스포츠크터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150억) ▲다양 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38억)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 (175억) ▲광양항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50억) 등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도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밀하게 사업별 확보 전략을 수립해 예산편성 순기보다 한 걸음 빠르게 소관 부처와 기재부를 끊임없이 찾아가 사업 필요성에 대해 타당한 논리로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MICE 유치 위한 해외 마케팅 시동

태국 국제여행박람회 참가 30개 업체 상담...관광지 홍보

여수시가 지난 28일까지 닷새간 열린 '태국국제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전시·행사 사업(MICE)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29번째로 열린 태국국제여행박람회(TITF2024)는 태국 최대 여행기구인 태국여행업협회(TTAA)가 주관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열렸다.

해마다 40만명의 소비자, 관광·여행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이다.

올해는 일본, 중국, 인도, 스위스 등이 참가했다.

여수시는 참가국들에 MICE 혜택과 기반 시설, 대표 관광지, 이색적인 MICE 명소 등을 소개했다.

박람회 첫날 여수시는 태국 여행업체 450여 개가 참가한 'B2B' (기업 간 거래)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30여 개 업체와 일대일 상담을 하며 MICE 최적지인 여수의 매력을 알렸다.



여수시가 지난 24~28일 태국에서 열린 '국제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전시·행사 사업(MICE)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한-태상공회회의소가 주관한 경제전망 세미나 행사에도 참여했다.

태국법인 한국 주요 대기업들에 여수 MICE 유치를 설명하고 한태교류센터 등 기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여수시의 이번 행사 참가는 지난해 8월 태국여행업협회(TTAA) 정기행사 초청에서 비롯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신일자 여수시 관광과장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발맞춰 동남아시아부터 미주, 유럽까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MICE 유치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 MICE 도시와 교류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해외 MICE 행사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D 영상'으로 군민과 소통 구례군, 군정 방향 소개

구례군은 최근 나흘에 걸쳐 열린 '군민과의 공감 대화'에서 3D 입체 영상을 활용해 올해 군정 방향을 소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군민과의 공감 대화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오는 2030년 발전 사업을 마무리한 5대 권역의 모습을 3D 영상으로 소개했다.

5대 권역에는 구례읍 권역, 섬진강 권역, 지리산 온천·정원 권역, 화엄사 권역, 자연드림파크 권역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섬진강 권역인 구례읍 봉서리·문천면 죽마리 일원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섬진강 오산 케이볼카'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2.34km 길이 수송기 45기가 운영될 예정이다. 시간당 수송 인원은 1200명 정도다. 군비 71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54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례군은 지난해 6월 민간 사업자와 투자협약을 맺은 뒤 오는 2025년 7월 착공해 2027년 4월 완공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권역별 역점 사업들의 진행 상황 등을 영상과 함께 설명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지역민들이 건의한 소중한 의견은 이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내년 국비 4640억원 확보 총력



김철우(가운데) 보성군수 주재로 '2025년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별교 갯별 유산 관리센터 건립 등

보성군은 '2025년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어 내년 별교 갯별 유산 관리센터 건립 등을 위한 총 46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보성군이 최근 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에서는 지역 미래 성장을 이끌 사업이 선정됐다.

내년 총 4640억원의 예산 확보를 목표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별교 갯별 유산 관리센터 건립 ▲어촌 신활력증진 ▲보성 비봉마리 시설 개선 ▲주월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양촌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쾌사리 농촌 공간 정비 등 총 64개 사업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은 신청사업 예산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부 예산 순서와 기간에 맞춰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보성군 역점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내세워 중앙부처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점 추진 사업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부서장들이 예산 활동을 펼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 2019년부터 직접 해 온 재정안정화 기금이 있고 교부세 감액 '제로'라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며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기획과 구제화를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해 모두 힘을 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서 출산하면 5000만원 혜택

0세 부모에 월 100만원...산모 회복비·축복 꾸러미 등

고흥군이 저출산 문제 극복과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군수 공약사항인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사업' 추진을 추진한다.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 지원금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됐다.

군에서는 이와 함께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을 마련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세부 지원 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첫째-셋째 1080만원, 넷째-1440만원) ▲산모 건강 회복비(지역 내 출산 200만원) ▲돌맞이 축하금(50만원) ▲청년 부부 아이 안심 용품(8만원 상당)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원) 등이다.

또 매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0세

100만원·1세 50만원) ▲양육 수당(10만원) ▲아동수당(10만원)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고흥군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는 총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외에도 고흥군은 개인·금융기관·지역단체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축복 꾸러미(미역·쌀·소고기·상품)를 지원한다. 지정된 사진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을 지급하는 등 군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구 정책들이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출산을 제고에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여수시민 마음건강 위해 안심버스 갑니다

정신건강 검진·스트레스 측정 결과 따라 맞춤 서비스

여수시민들의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운영을 시작했다.

여수시는 29일 여수시청에서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안심버스' 제막식을 가진 뒤 뒤 상담을 위해 첫 출발했다고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해 직접 찾아가 심리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국비 1억1000만원이 투입돼 추진된다.

정신건강 검진과 스트레스 측정(노파·맥파) 및 측정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과 우울·고위험군에게 2차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정신건강 및 자살 문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와 더불어 재난 위기 발생 시 현장 위기 대응,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소로도 운영된다.

마음안심버스 방문을 원하는 기관·단체는 여수



29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여수시 정신건강 이동 상담소 '마음안심버스'가 제막식을 갖고 첫 운행에 시작했다. <여수시 제공>

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우울증 확산 등에 따른 적시의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기동성을 갖춘 마음 안심 버스가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아픈 아이 더 꼼꼼하게 살핀다

소득별 지원금·운영시간 확대...대형병원도 협약병원 포함

순천시가 이달부터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시간을 조정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시작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지원은 소득별 시간당 2000원(15%)~1만1000원(85%)에서 올해부터 7000원(50%)~1만2600원(90%)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최대 8시간에서 보호자 출퇴근 등을 고려해 오전 8시~오후 7시 사이 1일 최대 10시간까지로 바꾼다.

협약병원도 기존 5개 아동병원(현대여성아동병원·미즈여성아동병원·플러스아이미코병원·이노스아이비인후과·미래로소아정신과)에서 대형병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는 입원 아동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전문적 돌봄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병원으로 찾아가 입원 아동의 식사·복약지원, 놀이 및 정서적 돌봄을 지원하는 일대일 돌봄이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순천시에 거주하는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입원 아동이다. 최대 연 100시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사단법인 순천YWCA(061-743-5852)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만족할 만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